오거스트 윌슨의 『일곱 개의 기타』와 미흑인 연극사에 나타난 인종적 정의의 문제

정 승 조

차 례

Ⅰ. 서론
Ⅱ. 흑인 연극 사에 나타난 인종적 정의의 문제
Ⅲ. 『일곱개의기타』를 통한 정의의 문제제기
Ⅳ. 결론

Ⅰ. 서론

오거스트 윌슨(August Wilson)은 고등학교 시절 개인적으로 경험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해버린다. 윌슨은 나폴레옹에 관한 글쓰기 과제물에 대해 선생님이 표절 처리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의 글쓰기는 선생님으로부터 부정행위라고 판정은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글쓰기가 뛰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윌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표절자로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보였기에 자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부당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윌슨은 비록 자퇴는 하였지만 인종 차별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글쓰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윌슨에게 글쓰기는 개인의 차별 극복 문제를 넘어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위한 공동체적 정의의 문제 제기를 위한 통로라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글쓰기를 시작해나간다.

윌슨은 20대 습작시기가 끝나고 1984년 『마 레이니의 검은 엉덩이』(*Ma Rainy's Black Bottom*)를 쓰기 시작한 이후 10년 주기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그는 점점 현대 미국 연극 사에서 가장 많은 호평과 비평을 동시에 받는

주목 받는 작가가 되었으며 그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인종 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적 이슈와 블루스와 같은 흑인의 문화를 현대 미국 사회로 끌어내는 일이었다. 그는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 부당한 차별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나 투쟁을 하도록 설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에게는 외부에 대한 항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를 현대를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을 맡기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그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각자 차별과 불평등에 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다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윌슨은 바로 이러한 흑인들의 공통 경험을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윌슨이 살았던 1940년대를 포함해서 노예제도가 생긴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상 흑백간의 갈등과 차별도 많았던 격동기를 거치면서 흑인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과 같은 경험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 전쟁(1861-1865)이후 흑인들도 자유롭게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연합체 속에서 흑인들에게는 정의의 문제가 사회적인 공통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그것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한 인종 구분선과 노예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미국 문학 속의 흑인 연극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연극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갈등과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을 통해 윌슨의 작품과 흑인 연극의 발전을 동시에 다루면서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윌슨은 194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흑인 작가와 정치가들은 각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적극적인 저항, 소극적인 저항, 중도적 입장 등을 취하게 되는데 윌슨은 작품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려고 애썼다. 결국 윌슨이 작가로서 지향하는 작은 목표는 흑인들에게도 정의가 좀 더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관객들에게는 흑백 모두

가 공감하는 보편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담 크러그네일(Adam Crugnale)도 윌슨의 작품들이 '인종적인 부당함'이나 이루기 힘든 '아메리칸 드림' 같은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6).

따라서 본 연구도 흑인 연극이 정전으로 인정받기까지 어떤 불평등, 차별 등을 겪었으며 또 흑인 작가들은 부당한 인종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어떤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가와 등장인물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강력한 저항이나 투쟁을 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흑인 역사와 전통을 미국 사회 속에 접목시키는 스타일이다. 윌슨을 예로 들면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흑인이라는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작품을 통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더욱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흔히 인종적인 정의를 외칠 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종으로 인한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된다. 윌슨도 자신의 경험과 목격을 바탕으로 불평등, 차별,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매우 자세하면서도 극적으로 제시한다.

위와 같이 흑인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정의의 문제를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윌슨까지의 흑인 연극 사를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흑인에 관한 차별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의 흑인 작가들과 윌슨은 어떤 시각으로 정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윌슨 작품 중 『일곱 개의 기타』(*Seven Guitars*, 1996) 의 흑인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 정의의 문제제기를 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문제 제기가 된 이슈들에 대해 등장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Ⅱ. 흑인 연극 사에 나타난 인종적 정의의 문제

흑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겨나는 노예, 인종차별, 역사의식 부재, 불평등, 정체성 등의 문제는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흑인과 연관된 부정적인 시각들을 정의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연구하게 되면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한 미국 사회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예제도 이후 미국의 백인 사회도 나름대로 정의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흑인과 백인이 함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흑인에 대한 고정된 스테레오 타입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흑인도 미국 사회 속에서 엄연히 미국인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정의의 문제는 윌슨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윌슨의 작품을 비롯하여 많은 흑인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 식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극에는 흑인극의 정전의 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이나 간접적인 저항, 흑인 역사 다시 쓰기, 블루스, 페미니즘, 남성의 역할 등이 정체성보다 더 부각되어 있다. 윌슨에게 정의의 문제는 꼭 흑인 입장에서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적극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매우 평범한 인물에게도 목소리를 부여하여 흑인에게는 자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윌슨이 시도하는 흑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쓰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흑인들의 역할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할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윌슨은 백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흑인들이 먼저 자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를 통해 그가 만들어내는 인물들은 의도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윌슨은 희곡으로 완전히 전향하기 전에 시와 소설에도 잠시 관심을 보였으나 희곡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는 시나 소설은 예술 창작을 위해 적합하지만 희곡을 쓰게 되면 예술뿐만 아니

라 사회적 목소리도 즉시 담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윌슨은 일단 희곡을 쓰기로 결심한 이후 극작 구성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모든 작품의 근간은 블루스(Blues)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블루스를 활용하면서 흑인의 과거인 아프리카를 돌아보고, 현대 미국 사회 속에서의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연결한다. 그 외에 아미리 바라카(Amiri Baraka), 로미어 비어든(Romeo Beardon),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등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윌슨에게 블루스는 흑인을 대변하며 흑인의 역사, 문화, 흑인의 미래까지 담고 있기에 블루스는 곧 흑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모든 작품에 블루스라는 주제는 정해졌고 남은 것은 작품 전개 방식이었다. 주로 보르헤스의 스토리 텔링 방식을 취하여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건의 과정에 몰두하게 한다. 또 구성은 비어든 그림에서 보여주는 여자 주술사, 장례사, 기차, 기타 등의 꼴라쥬 형태로 만들어 개별적인 상관물이나 사건들이 결국은 서로 연관을 맺어 개연성을 지니게 만든다.

윌슨은 흑인의 과거는 결국 아프리카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믿기에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 정신, 토속종교 등도 작품 속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 이렇게 일단 주제와 전개방식이 정해지자 윌슨은 다소 긴 습작활동을 거쳐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1] 윌슨은 여러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두 번에 걸친 퓰리처상, 일곱 번의 뉴욕 극비평가 협회상, 토니상, 그리고 구겐하임과 라커펠러 장학금, 인문학 대통령 훈장, 2003년 하인즈상, 그리고 2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Madhubuti 19). 휘태커(Charles Whitaker)는 윌슨을 향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극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였고(84), 또 알렌 나델(Alan Nadal)은 윌슨이 미국

1) 윌슨은 1984년에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마 레이니의 검은 엉덩이』를 발표 하게 된다. 그 후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울타리』(*Fences*, 1987)를 발표하고 다시 1년 후 1910년을 배경하는 하는 『조 터너의 왕래』(*Joe Turner's Come and Gone*, 1988)를 완성한다. 그리고 1930년의 배경이 되는 『피아노레슨』(*Piano Lesson*, 1990)을 발표하고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두 대의 기차가 달린다』(*Two Trains Running*, 1992) 가 발표되고 1940년대가 배경이 되는 『일곱 개의 기타』가 이어진다. 1970년대의 배경을 그린 『소형버스』(*Jitney*, 2000), 1980년대를 그린 『킹 헤들리 2세』(*King Hedley II*, 2001) 등의 작품에 10년 주기의 다양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였다.

연극계를 지배하고 있는 감수성이라고 규정하였다(9). 비평가인 제럴드 버커위츠(Gerald M. Berkowitz)도 윌슨을 향해 가장 중요한 현대 미국 극작가이며 테네시스 윌리엄스(Tennesses Williams)와 아더 밀러(Arthur Miller) 이후 미국 연극계에 가장 풍요로운 소리라고 할 정도였다(194).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당시 세계의 큰 이슈를 보여주기도 하고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작품 전반의 주제가 되지는 못한다. 윌슨은 되도록 작품 속의 평범한 개인들을 통해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즉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잠시 유보하고 흑인들에게는 자각을 시키고 백인에게는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정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정의의 문제를 부각시킬 때 인종 차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윌슨이 다루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꼭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차별과 부담함에 관한 문제로 등장인물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된다. 그러다보니 윌슨의 작품에 대해서 인종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는 비평가도 있다. 로버트 브르스타인(Robert Brustein)은 그 동안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상연된 윌슨의 극 모두가 지나칠 정도로 인종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윌슨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윌슨이 진정한 의미의 주요 극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즐겨온 인기 있는 사회학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를 덧붙였다(28-9). 사실 윌슨의 작품을 들여다보거나 그의 작품 의도를 들어보면 인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만 다루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비평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윌슨은 흑인은 원래 아프리카계 민족이며 종교관도 다르고 백인과는 다른 미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02).

그러나 윌슨에게는 흑인의 역사와 문화가 고유한 미학이 될 수 있지만 백인들에게는 수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저급한 조롱거리로 비쳐질 수도 있다. 미국 사회 속에서 윌슨을 비롯한 대부분의 흑인들에게 가장 큰 정의의 문제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줄여나가며 없애야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은 정의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의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 차별, 인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

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할 때 차별과 인권, 그리고 불평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정의의 문제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곳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지만 개척시대부터 존재했던 노예와 흑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인들은 정의와 평등,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없었다. 희곡에 있어서도 흑인들은 흑인 연극의 태동기부터 많은 차별을 겪었다. 언제나 백인의 시각에 의해 그려지는 흑인 연극과 그 속의 등장인물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흑인에 대한 기존의 노예 경험 때문에 백인들에게 흑인들은 극 속에서 재미와 유흥거리 이상으로 취급받기 어려웠다.

1차 세계 대전에서 흑인들도 당당하게 미국인으로 참전하여 승리를 거둔 후 흑인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미국 사회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점진적이지만 흑인에 대한 관심과 인도적인 정서가 스며들면서 흑인 문화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 계기가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로서 흑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사실 처음에는 할렘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흑인들에게는 미화적인 문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뉴욕의 할렘은 처음에 흑인들만의 거주지로서 백인을 대표하는 뉴욕과는 맞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흑인들만 모여 살다보니 그곳이 자연스럽게 흑인의 전통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극 분야가 흑인 문화와 삶을 알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점차 1920년의 할렘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흑인 연극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많은 극작가들이 미국 연극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흑인 연극도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흑인 작가들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이나 투쟁을 모티브로 삼기도 하나 또 다른 작가들은 흑인 내부에서 우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즉, 그 동안의 차별에 대항해서 투쟁도 해볼 만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흑인들에게 흑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흑인 내부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믿는 작가들은 흑인 관객과 백인 관객을 구분하지 않고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흑인 내부의 고정된 시각을 주장하는 작가들은 연극을 통해 흑백 간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흑인의 역사와 문화는 미국 유

산의 일부도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유형의 흑인 작가들은 오히려 흑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하고 흑인 예술의 소재를 찾을 때도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서 찾을 것을 권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흑인의 창작은 더 이상 없으며 백인에 의해 길들여진 모습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관점이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많은 흑인 지식인들은 기존의 흑인 스테레오 타입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갈랜드 앤더슨(Garland Anderson)은『출현』(*Appearances,* 1925)에서 호텔 종업원 칼을 통해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제시하고 드 보이스(W.E.B. Du Bois)와 알랜 로크(Alain Locke)는 흑인 극을 권장하면서 흑인 소극장 운동(Little Theatre Movement)을 전개하며 흑인들이 우선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흑인들의 삶을 충실하게 그려야 함을 촉구하였다. 흑인 작가들은 소극장 운동을 통해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동시대의 관객들에도 흑인의 역사를 알릴 기회가 되었다. 또 어떤 작가들은 흑인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극을 써서 백인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을 하기에 앞서 흑인 내부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윌리스 리차드슨(Willis Richardson 1889-1977)은 사극『원주민의 탈출』(*The Flight of the Natives*, 1927)에서 노예제도의 왜곡을 일깨워주고『굴욕의 가정』(*The House of Shame* 1929)에서는 흑인 중산층의 허세를 폭로하며 단지 허영과 물질에만 지쳐있는 흑인들을 비난한다. 이처럼 흑인 작가들은 인종 차별이나 노예의 문제만을 가지고 불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흑인 사회 내부를 통해서도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랭스턴 휴스(Langston Hughes 1902-1967)는 인종의 문제를 작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즉, 백인이 그려놓은 기준에 충실하게 따르면 백인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흑인 연극계의 창작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휴스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은 흑인의 모습을 그릴 때 기존의 백인이 그려 놓은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그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종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1930년대와 1940년대는 1920년대의 할렘르네상스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이 더욱 심하였고 그 흔한 아메리칸 드림은 흑인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다. 당연히 이 시기는 저항과 투쟁, 항의의 격동기였다. 할렘르네상스의 대표적 극작가 랭스턴 휴스는『혼혈아』(*Mulatto,* 1935)를 통해 혼혈아로서 겪는 흑인의 차별과 고통을 그려냈다. 심지어 백인극작가 제임스 밀러(James Miller)가『제발 그만』(*Never No More,* 1932)이라는 작품을 통해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 가혹하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피부색이 정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또 정부 주도에 의한 연방 극단 프로젝트(Federal Theatre Project)라는 4년간의 사업을 통해 흑인 작가들은 극작과 공연에 많이 참여하여 흑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데 앞장섰다. 비록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목적을 담은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짧은 시기로 막을 내렸지만 많은 흑인 작가들에게는 글쓰기로도 얼마든지 흑인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 이후 다행스럽게도 전미 흑인 극단(American Negro Theater)이 뉴욕에 설립되어 흑인 연극의 발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연극도 격렬한 항의와 고발의 연속이었다. 이때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에게 정의라는 단어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었다. 대부분 작품이 부조리한 미국 사회의 고발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이 시기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흑인 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다보니 미국 흑인 연극은 우선 상연자체가 가로 막혀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들어서서 마르틴 루터 킹(Martin Ruther King)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동체적 책임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흑인 연극도 백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정의의 문제도 관객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로레인 헨스베리(Lorraine Hansberry)는『태양속의 건포도』(*A Raisin in the Sun,* 1957)를 통해 흑인 빈민가와 백인 거주 지역으로 나누어진 울타리 같은 사회적 제도로 인해 여전히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산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이 작품은 인종차별이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할 문제임도 동시에 자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헨즈베리는 극 속의 레나(Rena)가 정원이

딸린 집을 사고자하는 꿈을 통해 흑인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핸즈베리는 레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킹 목사가 주장하는 흑인의 자존심과 덕성을 활용하여 백인관객들에게 흑인들도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 이 작품은 미국 전역에 TV로 방영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인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니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사회는 1957년의 인권법령(Civil Right Act)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인종 문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준비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인종에 대한 정의의 문제는 처음에는 흑인 소수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미국 연방 정부까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는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 등의 가치체계로는 미국 사회를 떠받칠 수 없음을 깨닫고 기존의 가치체계와 지배문화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이 일어났다. 흑인 연극의 블랙 파워 운동(Black Power Movement)은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이며 흑인 역사와 문화를 재인식하여 흑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려는 저항 운동이었다. 그리고 흑인 예술 운동(Black Arts Movement)은 단지 예술을 위한 침묵하는 지식인 운동이 아니었다. 흑인 작가들은 흑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작품을 써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흑인이 갖고 있는 고유성 즉, 아프리카의 요소, 흑인 음악, 흑인 문화의 뿌리 등을 활용하여 흑인 예술에도 흑인 미학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흑인 예술 운동의 선구자는 아미리 바라카(Amiri Baraka)인데 흑인 연극은 오로지 흑인만을 위한 연극이 되어야하며 관객도 흑인만을 입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너무 극단적이라 볼 수 있다. 그의 극은 단순한 의식 개혁 차원을 넘어서서 혁명에까지의 동참을 유도한다. 하지만 그는 흑인 연극의 최우선 과제는 백인에 의해 손상된 흑인의 정신적 치유라고 보고 연극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예술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에드 벌린스(ED Bullins)도 '경험극'을 통해 흑인 연극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바라카와 다른 점은 굳이 흑인들의 고통스런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입장은 흑인들의 고통스런 경험은 이미 충분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에 등장인물

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해야지 억지로 작가가 특정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다.

1970년대는 흑인 문학의 번성기인데 이때부터 비로소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며 흑인 연극도 미국 연극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 시기는 흑인 연극 단체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니그로 앙상블 극단(Negro Ensemble Company)이 설립되어 흑인 연극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이 시기의 흑인 연극의 가장 큰 특징은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은 많은 흑인 여성 작가들의 등장이다. 흑인 여성작가들은 인종, 성, 사회계급 차별 등을 작품 주제로 삼았다. 당시의 대표적인 흑인 여성 작가는 앨리스 칠드레스(Alice Childress)로 흑인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 토자케 상게(Ntozake Shange)는『무지개가 비칠 때 자살할 생각을 하는 흑인 여성들을 위해』*(For colored girls who have considered suicide when the rainbow is enuf,* 1974)라는 작품을 통해 흑인 여성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흑인 여성도 엄연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 차별과 흑인 여성과 흑인 남성이라는 성차별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흑인 연극은 백인 연극에 비하면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서히 미국 문학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주제의 한계성이다. 흑인이라는 인종적 제약 때문에 노예, 인종, 인권, 투쟁, 불평등, 아프리카 등 백인의 보편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소재가 많다. 흑인 연극이 발전하려면 백인 관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극의 주 고객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비평가와 백인 관객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극작 기법과 주제가 신선해도 공연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바라카 같은 작가는 오히려 관객을 흑인으로만 한정하였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흑인 연극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고 갈등을 키우기만 할 뿐이다. 칠드레스 같은 작가는 백인 관객의 입장은 허용하였지만『마음속의 격정』(*Trouble in Mind*)의 대사 수정을 거부하면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끔 문학 장르에서 연출가와 작가 간에 시각차이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연출가 입장에서는 되도록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계층의 관객이 큰 혼란 없이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공연 기획 단계의 상업성과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흑인 연극이 상업성에 많이 좌우대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연극을 즐기는 계층은 대부분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윌슨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도 공연할 작품에 대해 수정 작업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윌슨은 흑인 연극과 미국 연극의 발전에 동시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윌슨을 통해 미국 연극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시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해서 흑인과 백인 양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모습을 그의 작품을 통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윌슨은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흑인 연극뿐만 아니라 미국 연극계에서도 주목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윌슨 자신이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하였다고 해서 단순하게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투쟁만으로 작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우선 윌슨은 연극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1968년 블랙 호라이즌(Black Horizon Theatre)이라는 극단을 창설하여 흑인의 영혼을 연극 속에서 표출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글쓰기 습작이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것은 1976년 페넘브라 극단(Penumbra Theatre)에서 활동하며 비로소 연극을 알게 된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재생』(*Recycle* 1973), 『귀향』(*The Homecoming* 1979), 『소형버스』(*Jitney* 1979),『플러튼 거리』(*Fullerton Street* 1980), 『블랙 바트』와 『신성한 언덕』(*Black Bart and The Sacred Hill* 1981)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이 비록 연극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속 작품들이 빛을 보게 된다.

윌슨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왜곡된 흑인의 역사,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점이다. 전달 방법은 바라카처럼 투쟁을 하는 혁명도 있지만 킹 목사와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흑인과 백인들이 흑인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흑인의 문화가 곧 미국 문화임을 인식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윌슨은 작품 속

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흑인의 역사, 노예의 역사, 흑인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인 등장인물들도 흑인 등장인물들처럼 극 속에서 평범한 인물로 내세워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상호간에 어떤 경험을 겪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준다. 윌슨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는다. 윌슨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도자에 의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 폭력, 투쟁, 살인 등의 극단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오히려 윌슨은 평범한 사람들을 극 전면에 배치하고 백인들의 거주지로 가는 이사문제, 토지 문제, 노예나 하인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백인 연출가와 흑인 가수, 기독교와 흑인 전통 종교 간의 갈등 등을 흑인과 백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Ⅲ. 『일곱개의기타』를 통한 정의의 문제제기

윌슨의『일곱 개의 기타』속의 시대적 배경은 1940년대로서 자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흑인들도 참전을 통해 미국 시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그래서 흑인들은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미국 군인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인종 차별이나 불평등을 제쳐두고 우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다. 흑인들은 종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백인들처럼 미국 시민으로 대우 받을 줄 알았고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이 되어왔던 인종문제가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었다. 윌슨은 바로 이러한 흑인들의 꿈이 미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흑인들에게 미국 사회는 가장 먼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임을 느끼게 하나 정작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 한 실례로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흑인들의 희망을 빼앗아 버린 상황을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사실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1 등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
> We actually believed that things would be different, and that we would be accorded first-class citizenship. We came back after the war, and that was not true. (99)

윌슨은 바로 개인들이 처한 정의의 문제를 보편적 문제로 끌어내어 미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윌슨은 흑인의 역사 다시 쓰기, 흑인의 정체성 찾기, 흑인의 문화 알리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불평등이나 인종 차별 같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윌슨이 시도하는 또 다른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성의 역할이다. 흑인 여성은 이중적인 차별을 겪었는데 인종적인 차별과 흑인 남성들로부터도 차별을 받아왔다. 흑인 여성은 미국 사회에서 거의 목소리가 존재해오지 않았다. 노예해방이 되고 자유 신분이 되었어도 흑인 여성들은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날 수 없었다. 윌슨은 여러 작품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일곱 개의 기타』에서도 윌슨은 베라, 루이스, 루비 등을 등장시켜 비록 남성들로부터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과거의 힘든 시련과 현재의 부당함을 잘 견디어 내어 현실 직시와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윌슨은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흑인 문화와 역사를 미국 사회에 올바르게 인식시키게 되면 정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새로운 작품을 쓰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을 간접적인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흑인들의 일반적인 삶을 공동체적 경험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의로운 국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행복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나 기회의 문제가 침해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하지만 1940년의 미국 사회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흑인의 기회, 흑인의 행복 추구에

관해서 종교까지도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윌슨이 작품 속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블루스를 작품 전반에 활용하여 흑인들에게 희망과 미래라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루이스가 작품 서두에서 플로이드의 장례식 직후 남은 사람들의 삶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블루스 노래를 불러준다. 블루스는 죽은 플로이드에게는 안식을 제공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단절이 아닌 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블루스로 인해서 남은 여섯 사람들은 플로이드와 지속적인 관계 설정을 할 수 있고 플로이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다. 물론 블루스가 윌슨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흑인들이 살아온 경험과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블루스가 흑인들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블루스는 내적인 성찰로서 백인에게 공감대는 형성될 수도 있지만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블루스는 흑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위로를 줄 수 있고 절망에 빠졌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윌슨은『일곱 개의 기타』를 통해 흑인들의 행복 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는 곧 미국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윌슨은 작품 속에서 플로이드(Floyd)라는 인물을 통해 현재 피츠버그에서의 여러 가지 인종적 편견 및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피츠버그는 한마디로 정의가 실종된 암흑사회이며 흑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안겨줄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플로이드는 시카고에 가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펼칠 수 있으며 또한 물질적인 성공도 보장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윌슨은 정의의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또한 해결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플로이드처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흑인이라고 해도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헤들리(Hedley)처럼 미국 사회로의 편입자체를 거부하며 모든 것을 흑인 전통에만 의지하면서 이분법적인 고집에 매달리는 인물도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케인웰(Canwell)은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 문화도 수용하

면 좀 더 합리적이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가치관이 항상 바람직한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도적 입장이 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합리적임을 보여준다. 윌슨이 주장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편협한 사고나 행동은 흑인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미국 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윌슨은 사회와 시대가 변했듯이 흑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이다. 윌슨은 그 전에 먼저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고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함께 화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플로이드가 생각하는 정의의 시각은 자신은 비록 흑인이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질적 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비록 흑인이지만 시카고에 가서 블루스 노래를 음반으로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선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플로이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츠버그는 같은 미국 땅이지만 아직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곳은 시카고라고 생각한다. 지금 피츠버그의 현실은 그에게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부랑자로 낙인찍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일한 노동의 지불 보증서를 잃어버려 무일푼 상태이다. 플로이드가 백인이었다면 감옥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며 또 설사 갇혔다 해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원인은 흑인이라는 선입견과 스테레오 타입 때문에 받는 차별에 있다. 플로이드에게 피츠버그는 정의가 실종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츠버그에서의 삶은 오직 기다림뿐이다. 지금 그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키워줄 시카고뿐이다.

플로이드의 말에 의하면 백인 경찰은 흑인들이 비록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체포해서 가둘 수 있고 또한 폭행까지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7). 당시에 흑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떠돌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였지만 흑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보니 부랑자로 다니다보면 범죄가능성이 있는 예비 죄수가 되어 경찰

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많았다. 플로이드도 예외가 아니기에 바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부당함을 겪게 되나 백인 경찰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플로이드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 피츠버그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전당포에서 10달러가 필요해서 빌렸지만 오히려 약속날짜가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시카고 레코드사에서 플로이드에게 보낸 계약금을 백인 홀이 가로채면서 흑인들에 대한 사기와 부당함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 속의 전당포는 더이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다. 흑인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고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플로이드는 기타를 맡겼지만 레드카터도 드럼을 전당포에 맡겨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작품 배경인 전당포는 흑인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던 모습도 재현된다. 전당포는 원래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맡기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서 도움을 주어야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당한 대우나 착취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흑인들은 자생력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플로이드는 우선 피츠버그를 벗어나는 것이 그나마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시카고행을 결심한다. 또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우선 플로이드는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당연히 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사회가 그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부분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기타가 있어야 하기에 전당포 주인을 권총으로 위협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꿈이지만 백인 사회 입장에서는 플로이드 같은 인물은 격리 대상이다. 다른 인물들도 모두 그처럼 무기를 갖고 있는데 헤들리는 도끼와 칼을 케인 웰도 칼을 지니고 있다. 레드 카터(Red Carter)도 권총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당포에 맡겼는데 이에 대해 마음이 불안하다는 심정을 드러낸다(83). 미국 사회입장에서 보면 흑인들이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흑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한편, 헤들리도 백인 사회로부터 많은 부당함을 겪게 된다. 헤들리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겪는 고통이지만 흑인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 차별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정의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백인들의 말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만 아버지가 병이 들어 의사를 불렀을 때 3일이 지난 후에야 와서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백인들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아파 요양원에 입원하라는 통지를 받아도 그는 그것을 감옥에 가두는 줄 알고 거부하게 된다. 그는 백인과 관련된 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흑인성만을 주장하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는 결핵에 걸려 있지만 절대로 백인 의사의 진료는 받지 않고 오직 미스 사라(Miss Sarah)가 끓여주는 차만 마시며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한다.

> 미스 사라는 성인이야. 그녀는 신이 만들어냈다면 성인이지. 그녀는 뭐든지 고칠 수 있어. 그녀는 큰 능력을 갖고 있지. 그녀에게는 약초 뿌리가 있지. 그녀에게는 차가 있지. 그녀는 능력도 있지. 아마 남자도 있던가?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지. 그건 내말이고. 근데 루이스 어젯밤 네 방을 내가 노크했었는데.
>
> Miss Sarah a saint. She a saint if ever God made one. She can heal anything. She got a big power. She got her roots. She got her teas. She got her powders. I wonder, do she have a man? Maybe next time I ask her. A woman need a man. That's what Headley say. I knock on your door last night. (21)

헤들리의 고집은 대부분 환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는 흑인은 바로 하나님이 빚어낸 이미지이기에 구세주라 생각하기도 한다. 또 피츠버그에 대농장을 갖겠다고 큰소리도 치며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자주 성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흑인들에게도 어떤 역할을 맡겼음을 알리려

고 애쓴다. 즉, 흑인은 개가 아니며 당당한 모습의 독수리라고도 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도 한다. 헤들리의 투쟁적인 모습은 결국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 헤들리가 아버지에게 흑인들이 투쟁하지 않는다는 나약한 모습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입을 발로 차게 된다. 이것은 바로 너무 흑인 민족주의에 집착하면 오히려 흑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중에 헤들리는 흑인들이 저항의식이 없이 항상 나약하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헤들리의 극단주의적 민족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복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버틀러(Butler)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는 흑인 자체의 공동체 의식을 깨뜨릴 수 있고 또한 상호간에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경계해야 이념이다. 결국 윌슨은 헤들리를 통해 백인 방식의 사회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는 점과 당시의 다른 흑인들처럼 “백인의 신발”(white man’s boot) 속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었다(Floor 6)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에 케인웰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모니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 흑인 문화를 적절하게 융화시켜서 흑인과 백인 즉 미국인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 인물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케인 웰 같은 사고방식은 세상과 가장 타협하기 쉬운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케인웰의 생각은 흑인 고유의 문화유산도 지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백인들에게도 흑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대도 해볼 만하다. 플로이드에게 시카고는 꿈을 실현해주는 곳이지만 케인웰에게는 오히려 흑인들을 이용하는 사악한 곳이다. 음반 제작이 다 되었는데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 하모니카를 길거리에서 불고 다닌다고 구금 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곳이다. 『일곱 개의 기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을 겪는다. 다만 각 인물들이 차별이나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심지어

케인웰과 레드 카터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 일종의 게임 놀이를 하기도 한다. 즉, 예를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임자라든가 먼저 손에 쥔 사람이 임자라고 우기면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풍자하기도 한다.

> (고구마 파이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레드 카터가 한 조각을 가져간다.)
> 케인웰: 거기 놔둬, 레드! 그건 내거야!
> 레드 카터: 내가 집었는데 어떻게 네 거야?
> 케인웰: 내가 눈으로 찍었다고.
> 레드 카터: 너는 눈으로 찍었지만 나는 손으로 집었어. 그것은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
> (A sweet -potato pie sits on the table. RED CARTER takes a piece.)
> CANEWELL: Uh huh, put that back, Red! That's my piece!
> RED CARTER: How's this yours when I got it?
> CANEWELL: I had my eye on that piece.
> RED CARTER: You had your eye on it and I had my hand on it. That go to show you the hand is quicker than the eye. (2)

윌슨은 이러한 게임 놀이를 통해 흑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해왔는지 보여주고자 함이며 또 백인들이 소유하는 과정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도 동시에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케인웰은 때로는 백인 사회와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되 가급적이면 흑인들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단순하게 인내하는 방법이 아닌 흑인들의 문화유산, 즉 블루스 문화를 통해서 흑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역사를 찾아주는 계기가 되게 하고 백인들에게는 공유해야 할 미국적인 공통 유산임을 인식시켜 단순하게 저항이나 투쟁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

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윌슨은 케인 웰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등장인물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또 플로이드에게는 연주한 대가에 대해 일시불로 요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도록 조언하고 헤들리에게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버리고 올바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 즉 요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헤들리에게 요즘은 흑인들에게도 자리가 배정될 만큼의 여유가 있으니 그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백인들과 똑같은 시설의 요양원은 아니고 조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만 그나마 치료는 받을 수 있기에 요양원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케인웰은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플로이드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헤들리는 나중에 교회까지 나가게 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베라에게 골든씰(goldenseal) 약초를 선물하면서 뿌리를 너무 깊이 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과거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문화유산을 지키되 항상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다.

Ⅳ. 결론

오거스트 윌슨은 현대 미국 드라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극작가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흑인과 관련된 문화 활동은 엄청난 차별과 부당함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본 논문은 1920년부터 흑인 문화 활동이 어떤 차별을 겪으며 성장하였는지 알아보고 또한 윌슨의 『일곱 개의 기타』를 통해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20년대는 할레 르네상스를 통해서 흑인 연극의 발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흑인 작가들은 육체적인 저항보다 우선 흑인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시기의 흑인 작가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도 당당한 시민이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소재를 구할 때도 흑인의 역사와 문화에서 찾을 것을 권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고유한

흑인 전통과 문화는 사라질 수 있고 백인에 의해 길들여진 전형적인 모습 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흑인 지식인들은 기존의 흑인 스테레오 타입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3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인종 차별에 항거하면서 적극적인 투쟁도 해보고 마루틴 루터 킹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인종 차별에 맞서기도 한다. 이렇게 시대별로 흑인들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중요한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상징적인 국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선 미국속의 인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민족주의 운동과 흑인 연극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인 연극은 공연을 통해서 인종 차별, 불평등, 인권 탄압 등을 다루지만 정의라는 단어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보였다.

윌슨의『일곱 개의 기타』는 바로 192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흑인들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험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마다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겪은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다. 그들은 백인이 만들어 놓은 체제나 제도는 흑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많은 고통과 조롱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다. 윌슨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작품 속에 활용하면서 평등과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백인을 향해서 정의에 대한 풍자를 시도한다. 또 한편으로는 항상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흑인들에게는 흑인 내부에 대한 자각도해야 함을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다. 윌슨은 차별과 부당함을 극복하려면 흑인의 공통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공감대로 이끌어내면서 흑인들에게는 우선 항의도 중요하지만 흑인 내부의 성찰이 우선해야 함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흑인 고유의 문화나 역사를 인식하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기에 윌슨은 흑인의 역사, 문화, 전통의식 등을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 용 문 헌

Berkowitz, Gerald. M. *American Drama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Longman, 1995.

Brustein, Robert. “The Lesson of ‘The Piano Lesson.” *The New Republic* 202 (May 1990): 28-29.

Crugnale, Adam. “People's Light tunes up 'Seven Guitars' to open season.” *Montgomery News* (September 11, 2012)

Floore, Nikita Monifa. *Seven Guitars: August Wilson's Portrait of Three African-American Women*. Illinois: Southern Illinois U Carbondale P, 2001.

Lahr, John. "Black and Blues." *New Yorker* 15 (1996): 99-101.

Madhubuti, Haki R. “In Memoriam August Wilson, 1945-2005.” *Diverse; Issues in Higher Education* 22 (3 November 2005): 19.

Nadal, Alan. “Introduction.” Ed. Alan Nadel, *August Wilson: Completing the Twentieth-Century Cycle*. Iowa City: U of Iowa P, 2010. 1-13.

Whitaker, Charles. “Is August Wilson America's Greatest Playwright?” *Ebony* 56 (September 2001): 80-83.

Wilson, August. “I want a Black Director.” *May All Your Fences Have Gates*. Ed. Alan Nadel. Iowa City: The U of Iowa P, 1994.

_____. *Seven Guitars*. New York: Dutton, 1996.

Abstract

The Racial Justice in August Wilson's *Seven Guitars* and Periodical African-American Plays

Jeong, Seungjo

August Wilson, through his various voices, dealt with justice, black experiences, Blues culture, African history, and African traditional ritual in his decade plays. The more important point is that he tri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African-American Plays because the characters of the plays had been treated as simply stereotyped ones. The African-American Playwrights have created two different voices, such as revolutional fighters and non-violent resistance. Wilson also gives his characters many roles, but they are just neighbors who we might meet in the street or in the pub. Their lives and experiences are not specific ones but rather close to very routine. Wilson's characters fight against the racial justice such as unfair treatment, racial discrimination. In addition, Wilson, in his plays, urges black people to recognize Black (African) history, Blues tradition, and African culture for the justice of the Black people.

This paper describes the problem of justice in the views of African-American theater and Wilson's play, *Seven Guitars*. In addition, African-American playwrights made har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both African-American and American Plays. The people, in the plays, live in Pittsburgh, but it seems that they don't have hope for the future there. They are struggling for money, against unfairness, and discrimination. Floyd believes that all of these things will be changed if only he moves to Chicago. Redcarter and Canewell are playing a game for a sweet potato pie.

This is a parody of how Black people experienced unreasonable treatment by the white people in the past.

Justice had come up to American society since African-Americans began to think that they were accorded American citizenship. For example, they took part in World War II for freedom and democracy. But they realized that in the great melting pot society, fair games had been continued only for the white people. Wilson noticed that the contemporary complicated situation and his individual experiences should be reflected into his plays. His characters have various roles, violent fighters, arbitrators for a compromise solution, traditional heirs of African identity, Blues singers for entertainment and Black culture, murders for money and greed, etc.

Key words: justice, Black theater, discrimination, unfairness, common experiences
정의, 흑인 연극, 차별, 불평등, 보편적 경험

논문접수일: 2012. 11. 20
심사완료일: 2012. 12. 11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정승조
소속: 안산대학교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0 우남@232동 402호
이메일: justjeong@ansan.ac.kr